

민속 해석의 한 연구

—경계의 이미지와 신성 창조 방법을 중심으로

황루시

1. 민속의 특징과 한계

민속은 전통 사회의 민중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삶을 운영해온 내용이 민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의례, 정초부터 설달그믐에 이르기까지 절기마다 하는 행사들, 마을과 집안의 조직, 민간 신앙과 무속, 의식주의 방식, 생산 기술과 놀이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민속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¹⁾

대개의 민속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대보름에 하는 다리밟기는 다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용알뜨기²⁾는 물이 풍족하여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실제 의미와 거리가 있고, 오히려 진짜 목적을 감추려는 경향이 강하

1) 최인하 외(2001),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pp. 15~18.

2) 정월 첫번째 용날 새벽에 동네 우물에 가서 처음 물을 뜨는 민속 행위이다. 우물 위에 짚이 나 새끼줄을 띄워 자신이 제일 먼저 물을 댔다는 표시를 남긴다.

다. 아마도 목적을 드러내어 언급했을 때 효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주술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문에 민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려면 상당히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속은 같은 내용을 여러 형태로 되풀이하는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놀이 등이 공존하면서 그 내용을 강화하고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민속의 중첩성에 주목하면서 그 중 경계의 이미지와 신성을 창조하는 의례를 중심으로 숨겨진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경계의 이미지

시작과 끝, 이곳과 저곳,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는 매우 위험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아직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체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다. 경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의 경계는 밤과 낮, 목은해와 새해 사이에, 공간의 경계는 집 안과 집 밖, 마을 안과 마을 밖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위험한 경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민속은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³⁾

I. 시간의 경계

사람들은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 시간을 구분한다. 주기적으로 시작과 끝을 만드는 것이다. 끝과 새로운 시작, 경계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의 시간은 불안정하여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설날그믐이나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민속의 상당수가

3) 이러한 통과 의례에 관해서는 반 켄넬, 전경수 역, 『통과 의례』(울유문화사, 1985)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시간 경계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시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민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 민속

언어 민속은 주로 금기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금기가 “선달그름에 잠자면 눈썹이 센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는 정월 14일 밤에도 해당된다. 이 말을 믿는 아이들은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실제로 눈썹이 하얗게 새어 있어 울음을 터뜨린다. 어른들이 잠든 아이 눈썹에 찹쌀풀을 발라놓았기 때문이다. 장난 같은 이런 이야기는 왜 생긴 것일까. 선달그름이나 정월 대보름 전날이 바로 경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해를 중심으로 하면 선달그름날 밤이 묵은해와 새해의 경계가 되고 달을 중심으로 하면 대보름이 경계가 되는 것이다.

위험한 경계는 신성과 통한다. 경계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구별되는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의 눈썹이 하룻밤 새 센다는 말은 곧 늙어버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성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흘러 지났으니 늙어버릴 수밖에 없다. 신성한 시간을 신성한 마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새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철학이 이야기의 근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2) 행위 민속

① 복조리와 야광귀

선달그름이 되면 사람들은 문지방 위에 복조리를 걸어둔다. 조리는 쌀이나 보리 등 곡식을 물에 담가 이는 도구이다. 흔히 복조리를 걸어두는 이유가 오목한 모양의 조리가 복을 긁어 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복조리 안에 동전을 넣어두어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는 사람도 있다.⁴⁾ 조리질을

4) 최인학 외(2001), p. 15.

하면 돌들은 물속에 가라앉고 곡식이 부풀어 올라 건져내게 되는데 이처럼 복도 부풀어 오르라는 의미에서 걸어둔다는 해석도 한다.

그렇지만 조리는 먹을 수 있는 곡식만을 골라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인 도구이다. 돌이나 티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은 걸러버리고 먹을 수 있는 곡식만 남기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액을 물리고 복을 가져오려는 정초 민속의 일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정월 14일 밤에는 방문 앞에 체나 키를 걸어두고 신발을 감춘다. 이날은 야광귀가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훔쳐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신발 주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나 키를 걸어두면 야광귀가 자디잔 구멍 수를 세다가 날이 밝아 결국 물러간다는 것이다. 이 민속의 의미는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체나 키의 기능 역시 조리처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걸러내는 데 있다. 체질, 키질, 조리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 개의 도구는 모두 곡식을 골라내고 나쁜 것은 가려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액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가려서 들여보내려는 주술적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광귀가 신발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야광귀는 밤의 귀신이다. 신발은 한 사람의 족적이니 곧 자신이 살아온 역사이고 아이덴티티이다. 만약 야광귀에게 신발을 빼앗기면 그는 곧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게 되고 영원히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체나 키로 묵은해의 액을 떨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살 수 없다. 야광귀에게 키의 눈을 세게 하고 신발을 감추는 행위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전이되는 신성한 시간을 맞이하는 민속인 것이다.

복조리와 야광귀의 민속은 모두 경계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묵은해를 경건하게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비로소 액을 물리고 복이 들어오는 축복받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② 부럼물기

정월 대보름에는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딱 소리 내어 깨물어 먹는데 이를 부럼 문다고 한다. 부럼의 의미는 굳은 껍질의 과일을 총칭하는 것과 부스럼의 준말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전한다.⁵⁾ 딱딱한 것을 깬다는 행위와 깨는 소리가 합하여 부스럼이나 종기 같은 액을 몰아내는 기능을 갖는 민속이다. 소리 내어 묵은해의 액을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3) 놀이 민속

①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는正月 대보름에 하는 놀이다. 생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등을 원추형으로 높이 쌓아서 만든 달집은 달이 떠오를 때 불을 붙인다. 대나무와 생솔이 타면서 딱딱 요란한 소리를 내고 불티가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하늘 높이 불이 타오르면 사람들은 매우 흥분하여 합성을 지르고 농악을 울리기도 한다. 불이 크게 타오를수록 소리도 요란해지고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이다.

사람들이 달집을 통해 정작 태우는 것은 묵은해의 잔재들이다. 모든 것을 깨끗이 태워 없애고 묵은 액을 완전히 소멸시켜 정화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함이다.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재만 남기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은 정화의 기능이 강하다. 그런데 달집태우기는 청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요란한 합성과 농악의 첫소리, 달집이 타오를 때 나는 딱딱 소리는 역시 잡귀를 물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액을 물리고 깨끗이 정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려는 민속인 것이다.

② 다리밟기

정월 보름날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다리밟기를 한다. 사람들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1), 『한국 민족문화 백과대사전』 제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70.

은 둥근 달을 보며 다리를 밟는다. 자기 나이 수만큼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다리와 사람의 다리를 동일시한 주술적 사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속신에는 본래의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다리밟기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리가 바로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사람의 넋을 천도하는 곳의 마지막 의례는 길뒹임이다. 한 필의 무명으로 저승 가는 길을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다리라고 부른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인 것이다. 무당은 춤을 추다가 다리를 가슴으로 찢어버림으로써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키고 망인을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보낸다. 이처럼 다리는 삶과 죽음, 묵은 시간과 새 시간, 이곳과 저곳의 경계의 이미지로 널리 쓰인다.

다리밟기에서 다리는 정월 대보름이라는 경계의 시간이 공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화된 시간을 두 발로 밟아주는 다리밟기는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계를 넘는 민속이다. 신성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행하는 또 하나의 의례인 셈이다.

③ 편싸움

정월에는 다양한 편싸움이 벌어진다. 논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줄다리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외 햇불싸움, 돌싸움, 고싸움, 쇠머리대기 등 각종 편싸움을 하는 때가 바로 정월인 것이다. 그런데 흔히 풍농 주술로 알려진 이런 편싸움 역시 경계의 시간을 보내는 민속으로 볼 수 있다. 묵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오게 만드는 일종의 주술로서 편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해도 만수대탁구 가운데에 있는 사또놀이⁶⁾나 탈놀음의 할미 마당⁷⁾은 모두 신의 교체 의례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이 든 무당이 신딸에게 당골을 물려주는 사또놀이, 늙은 본치가 젊은 첩에게 죽음을 당

6) 김금화(1995),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pp. 353~58.

7) 우리나라 대부분 탈놀음의 마지막은 할미놀이이다. 봉산탈춤의 미알 마당, 양주별산대의 신할애비, 신할미 마당이 여기에 속한다.

하는 할미 마당은 모두 낡은 신이 죽고 새로운 신을 맞이하는 교체 의례인 것이다. 처첩 갈등이 없는 양주별산대에서는 딸이 죽은 어머니를 위해 곁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역시 세대교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초에 주로 행해지는 편싸움놀이는 묵은해의 사라짐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당당히 승리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주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놀이 민속은 그 성격이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앞의 행위 민속과 구별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놀이마당을 벌이는 가운데 시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는 서구에서 설날그믐날 자정에 파티를 하면서 다 함께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과 유사하다. 놀이를 통한 집단적 방법이 위험한 시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데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신앙 민속

① 동제

동제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비는 공동체 의례이다. 이러한 동제는 대개 정월 초하루 새벽, 즉 설날그믐 자정에서 1시 사이에 모시거나 정월 대보름 새벽에 지낸다. 경계의 시간에 의례를 행하여 그 위험을 모면코자 하는 것이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아주는 장승이나 솟대를 깎아 모시기도 한다.

그런데 경계의 시간은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이기도 하다. 평소 인간은 신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굿이나 기타 민간 신앙 의례의 구조는 청신, 신과 인간의 만남, 송신으로 짜여져 있다. 무당은 먼저 부정을 몰려 굿청을 청결하게 만든 후 신을 청해 맞아들인다. 유교의 제사에도 제물을 진설한 뒤 신을 모셔 들이는 강신례가 있다. 신은 늘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즉 의례의 시간에 초청을 받아야 비로소 나타나는 존재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계의 시간에는 그 구별

이 무너지기에 신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언제든 신이 올 수 있는 의례의 시간인 셈이다.

II. 공간의 경계

1) 언어 민속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은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금기이다. 문지방은 집 안과 집 밖을 가르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집은 가족이 사는 중요한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집 밖은 믿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언제나 식구를 보호해주는 집과 밖을 가르는 문지방이 경계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경계이기 때문에 문지방은 신성해지고, 함부로 밟으면 안 되는 금기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2) 신앙 민속

① 서낭당

돌무더기와 나무, 그리고 간혹 당집으로 구성된 서낭당은 대개 마을 입구에 있다.⁸⁾ 서낭당이 입구에 있는 까닭은 그곳이 신성하고 또한 위험한 마을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서낭당을 지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돌 하나를 올려놓거나 가볍게 절을 하거나 또는 침을 뱉는다. 돌을 올리거나 절하는 것은 경계를 통과하면서 표시하는 경의임이 분명하지만 침을 뱉는 것은 앞의 두 가지 행동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행동이다. 침을 뱉는 행위는 결코 대상에 대한 위협이나 무시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뜻이 강하다. 특별히 제물을 장만하지 못한 까닭에 자신의 일부를 바치는 의례적 행위인 것이다.

8) 서낭당은 지역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부 지방의 서낭당은 돌과 나무로 되어 있고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영동 지역의 서낭당은 마을 수호신을 모신 곳으로 마을 뒤편 바닷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부 지방의 서낭당을 예로 들었다.

② 장승

장승이 서 있는 위치는 마을의 경계이다. 부릅뜬 눈이 썩 무서운 장승은 마을 밖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세워진다. 험상궂은 장승의 얼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존재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승은 안과 밖을 가르는 상징물이면서 그 시선이 마을 밖으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⁹⁾

③ 솟대

장간 위에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의 새를 올려놓은 솟대(짐대, 진포배기, 오릿대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른다)는 장승 옆에 함께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새와 오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기러기, 까마귀인 곳도 있다. 땅에 속한 존재이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상징한다. 하늘과 땅을 잇는 동시에 가르는 존재로서 장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솟대의 장간 역시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세계를 잇고 분할하는 세계수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후대에 와서 솟대는 다양한 성격이 첨가된다. 새의 이름이 오리로 나타나는 것은 수신 신앙과 함께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가 강조된 결과이다. 물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리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성, 풍요성과 관련 지은 것이다. 또한 솟대가 세워진 위치와 새가 앉아 있는 방향에 따라 주목하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달랑 한 마리 새가 앉아 있는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짐대는 바닷가에 세운다. 이는 짐대가 바다에서 오는 액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릉시 강문의 진포배기는 마을 입구에 세워는데 세 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 각각 풍채, 화재, 수재를 막는다고 믿는다.¹⁰⁾

9) 황루시·김수남(1986), 『장승제』(평민사)에서 자세히 고찰했다.

10) 국립민속박물관(1988), 『강원 지방 장승, 솟대 신앙』, 국립민속박물관, pp. 85~86.

3. 신성의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일상적이다. 그렇지만 제의는 비일상적인 시공에 하기 마련이다. 흔히 제의가 경제의 시간에 행해지는 것은 경제가 갖는 비일상성, 신성성 때문인 것이다. 제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내야 한다. 즉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성을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 의례이다. 제의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신은 반드시 깨끗이 정화된 상태라야 강령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성을 창조하는 민속 의례의 내용을 살펴본다.

I. 금줄

금줄은 마을에서 동제를 올리거나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친다. 금줄은 반드시 왼쪽 방향으로 끈 새끼를 사용하고 여기에 솔잎이나 마른 고추, 숯 따위를 꽂는다. 금줄의 목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그 안에 신성성을 유지해야 할 존재가 있을 때 친다. 해산을 한 집이나 동제를 앞두고 당(堂) 앞에 치는 금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쩌신을 삼거나 가마니를 찢 새끼는 오른쪽으로 끈다. 그렇지만 금줄은 반드시 왼쪽으로 끈다. 이는 오른쪽과 달리 왼쪽이 비일상적이고 그래서 신성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의 수호신이 하강하는 장소인 당은 평소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공간인 것이다. 집은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이웃이나 친척, 그외 용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아기를 낳거나 마을 제사의 제관을 맡으면 그 집은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별한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갓난아기나 제관은 낯선 사람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올지 모르는 액으

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 역시 평소에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다. 당은 건물로 지어진 곳도 있지만 대개 산 위의 평평한 정상이나 돌무더기, 나무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당 주변에 소를 매어두기도 하고 겨울이면 당 안에서 거지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 하지만 동제를 모실 때가 되면 당은 신이 강림하는 신성한 공간이 되는데, 일상에서 신성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줄이다.

동제 날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주를 담그는 것이다. 술을 빚어 항아리에 담은 뒤 당 마당에 묻은 다음 당 앞에 금줄을 친다. 이어서 제관의 집 대문 앞과 마을 입구에도 금줄을 치는데 이후부터는 외부인이 함부로 마을이나 제관의 집에 드나들 수 없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금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줄을 친 공간은 신성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낯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금줄은 공간적 표시이지만 반드시 시간과 관련된다는 또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해진 공간은 금줄을 친 동안만 신성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 금줄을 걷으면 집이나 마을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줄은 대문의 양 귀퉁이에 매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럴 경우 금기가 해당되는 지역은 대문이 있는 건물, 즉 집이나 당이 된다. 마을 입구의 금줄은 나무나 바위의 양면에 길쭉게 가로질러 묶는데 해당 지역은 마을 전체가 된다. 제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람들은 금줄을 끊고 들어가게 된다. 일단 금줄이 찢리면 그 순간 금기도 해제된다. 즉 금줄은 매여 있는 동안만 신성한 것이다.

금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황토 피우기가 있다. 제의를 올리기 전에 제관 집 대문이나 당 앞에 산에서 캐온 깨끗한 황토를 한 무더기 퍼놓는 것이다. 문 앞의 황토는 그 집이나 당의 신성성을 보장한다. 황토는 벽사의 색이 중요하다. 붉은색으로 부정을 막고 신성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금줄이나 황토 대신에 송침을 하기도 한다. 송침은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대문 옆에 찢러두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푸른 기운이 액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역시 일정 기간 해당 공간의 부정을 막고 정화하여 신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II. 지신밟기

정초에 당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마을 농악을 꾸며 동네 우물이나 집을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마당밟기, 뜰밟기라고도 부르는 지신밟기의 목적은 마을과 집의 잡귀를 몰아내고 정화하여 복을 받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지신밟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팽파리를 비롯한 농악기의 소리와 농악꾼들이 발로 팡팡 땅을 밟으면서 돌아다니는 행위이다. 농악을 울리면서 농악대가 밟은 공간이 정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악의 악기는 흔히 쇠라고도 부른다. 농악을 굿물이라고 부르고 농악하는 것을 굿친다, 쇠친다고 말한다. 쇠소리는 잡귀를 물리는 힘이 있다고 하여 동제를 모실 때나 지신밟기 할 때 쇠를 치는 것이다. 쇠를 치면서 돌아다니면 그 공간은 깨끗하고 신성한 곳으로 정화된다. 즉 쇠소리, 청각을 통한 공간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III. 돌돌이

돌돌이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도당굿을 할 때 마을 전체를 정화하는 의례이다. 먼저 마을을 동그랗게 에워싸는 동서남북 외곽에 각각 하나씩 네 개의 장승을 세운다. 돌돌이꾼은 동네 꼬마들과 함께 마을을 빙 돌아 장승 앞으로 온다. 아이들은 손에 칼처럼 만든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다. 장승 근처에 오게 되면 돌돌이꾼은 갑자기 도망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돌돌이꾼을 쫓아다니고 막대기로 엉덩이를 마구 찌르는 것이다. 돌돌이꾼이 장승 주변을 돌면서 쫓기다가 마침내 주저앉으면 돌돌이는 끝난다.

이 의례에서 돌돌이꾼은 마을 밖으로 몰아내야 할 액이 된다. 순수하기 때문에 벽사의 힘이 있다고 믿는 아이들에 의해 퇴치되는 대상인 것이다.

이때 악사들은 쟁과리, 징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여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 의인화된 액과 퇴치자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린아이, 나무 칼, 쇳소리, 합성으로 마을을 정화하는 의례가 바로 돌돌이다. 돌돌이가 끝나면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을 모신 가운데 본격적인 굿이 시작된다.¹¹⁾

IV. 방수밟기

방수밟기란 서울굿에서 무당이 신을 모시기 위해 일정 공간을 정화하는 의례를 말한다. 무속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많은 신을 모시는데 신이 바뀔 때마다 무당이 입는 신복이 다르다. 무당은 신복을 입은 뒤 모자를 들고 굿청으로 나온다. 모자를 든 채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당의 발 동작을 특별히 방수밟는다고 부른다. 무당은 들이숙배 내숙배를 하면서 전후좌우로 돛자리를 깔아놓은 공간을 밟는 것이다. 제주도는 무당이 굿할 때 반드시 신자리를 깔고 그곳에 신이 강림한다고 믿는다. 무당의 발이 간 공간에 신이 내려오는 것이고 무당은 그 자리를 밟는 과정을 통해 정화하는 것이다.

방수밟기를 하면서 무당은 천천히 모자를 쓴다. 그런 후에 소맷자락을 펼친 채 춤을 추다가 부채를 들고 춤추고 다시 삼지창이나 월도 같은 무구를 든다. 신복이나 무구를 통해 신이 내려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굿에서는 제장의 정화와 청신이 함께 이루어진다.

무당이 신들리면 도무를 한다. 위아래로 뛰는 것이다. 발뒤꿈치를 지그시 누르고 뛰는 이 춤은 바로 무당이 신들렸음을 의미한다. 즉 신을 청하기 위해서 추는 춤이 전후좌우, 즉 수평이라면 신들렸을 때는 춤이 상하의 도무, 즉 수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무당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돌고 “위 굿자” 하고 제자리에 서면 무당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신으로 인격이 전환되어 만인 앞에 선 것이다. 이때부터 무당은 신의

11) 황루시(1988),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경기도 당굿 참조.

말, 즉 공수를 내린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터벌림을 한다. 터벌림이란 문자 그대로 터를 벌리는 곳이다. 팡대가 뽕과리를 들고 나와 치면서 온갖 묘기를 보여주는 놀이성이 강한 곳이지만 원래의 목적은 역시 세장의 정화에 있다. 양주별산대의 첫 과장은 상좌춤이다. 두 명의 상좌가 나와 매우 의례적인 춤을 추는데 역시 발로 밟아서 놀이 공간을 정화하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경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민속과 신성을 창조하는 다양한 의례를 살펴보았다. 언어와 행위, 놀이, 의례로 구성되는 다양한 민속들은 생활 속에 녹아 있어 평소에는 그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속들은 위험한 삶의 고비를 무사히 통과하고 풍요로움을 구가하려는 목적 아래 면밀하게 배치되고 반복, 강조되는 실상을 볼 수 있었다. 민속은 중첩성을 통해서 강화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민속박물관(1988), 『강원 지방 장승, 솟대 신앙』, 국립민속박물관.
김금화(1995),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최인학 외(2001),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1), 『한국 민족문화 백과대사전』 제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황루시·김수남(1986), 『장승제』, 평민사.
황루시(1988),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반 겐넵, 전경수 역(1985), 『통과 의례』, 을유문화사.

A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of Folk Customs

—Focusing on the Image of the Border and the Method of Divinity Creation

Hwang Rusi

A characteristic of Folk customs is the reiteration of content in several different forms. It has a structure to strengthen the content and integrate it into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via the co-existence of folk stories, actions and plays. This thesis, verifies the hidden meaning behind the image of the border and the ritual that creates a divinity and focuses on this characteristic of reiteration.

The *border* does not belong anywhere in realm of the past or future, and does not refer to a place: it is neither here nor there. However, the image of the border *can* be categorized in time and space. The *Time border* usually refers to the last day of December or the day before the Full moon in January(in lunar calendar). Folk customs that aim to pass the dangerous and divine border of past and future include: Folk stories that warn that ones eyebrows will whiten if one sleeps on the last night of December; *Folk activities* such as hanging *Bokjori* in the last night of December or hang *Che* or *Ki* to prevent *Yakwanggut*(mad night ghosts); and to play burning *Daljip*, stepping on bridges or fighting in groups for

entertainment. Village rituals, referred to as *Dongjes*, are mostly offered eithe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the night of the Full moon in January as people regard the time border important. The *Space border* is of particular importance which is evident from Folk stories warning not to step on a door sill, and stories which talk about the gods that protect the entrance of villages, such as *Sunangdang*, *Jangseung* and *Sotdae*.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to create divinity is to enclose an area with a *Keumjool* (a rope for prohibition). Once an area is enclosed by the *Keumjool*, divinity is guaranteed for that space for a fixed period. Moreover, the divine spaces can be created by *Jishin-bapgi*, *Doldori* and *Bangsoo-bapgi*.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Folk customs mentioned above as they melt into the daily lives of peopl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Folk customs were meticulously arranged, repeated and emphasized to safely pass through critical moments in life and glorify the experience of life.

열쇠어: 경계, 금기, 금줄, 행위 민속, 놀이 민속.